



몸 못지않은 등근육 어때요? 1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0회 춘계전국보디빌딩대회 여자 일반부 -49kg급에 출전한 선수들이 포즈를 취하며 근육을 자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택-페더러 오늘 맞대결

ATP 마스터스시리즈

한국 남자 테니스의 '간판' 이형택(세계랭킹 49위·삼성증권)이 '황제' 로저 페더러(1위·스위스)와 생애 두 번째로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이형택은 17일(한국시간) 총상금 208만 달러가 걸린 남자 프로테니스(ATP) 투어 모나코 몬테카를로 마스터스시리즈 2회전에서 미카일 유즈니(17위·러시아)를 2-0(6-4 6-3)으로 격파하는 과업을 연출하며 3회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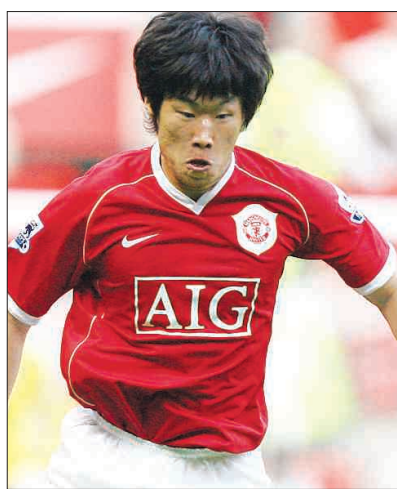
1회전을 부진승으로 통과한 페더러도 2회전에서 안드레아스 세피(101위·이탈리아)를 2-0(7-6(7-4) 7-6(8-6))으로 힘겹게 따돌리고 3회전에 올라 19일 이형택과 8강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됐다.

이형택은 지난 2003년 메이저대회인 윈블던 1회전에서 0-3으로 진 이후 4년 만에 페더러와 두 번째로 격돌한다.

지난 2월 ATP 투어 SAP 오픈에서 8강에 올랐을 뿐 나머지 6개 대회에서는 모두 1회전에서 탈락하며 부진했던 이형택은 2주 전 서울에서 벌어진 데이비스컵에서 안정을 되찾았고 우승 상금만 46만 달러인 특급대회인 이번 마스터스시리즈에서 3회전에 올라 부활 가능성을 높였다.

이형택이 올해 기에르모 카나스(55위·아르헨티나)에게 두 번이나 연속으로 져 하락세를 타고 있는 페더러를 넘어설 수 있을 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프리미어리그 히소식



이영표 '수술 무사히' 박지성 '조만간 복귀'

무릎 부상으로 올 시즌을 마감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이영표(30·토트넘 홋스퍼·왼쪽)가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18일(이하 한국시간) 이영표의 소속사인 쉐이켄은 "이영표가 오늘 오전 영국 런던에서 수술을 잘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표는 지난 6일 치러진 유럽축구연맹(UEFA)컵 8강 1차전 세비야와 원정경기(1-2 패)에서 폴타임을 소화한 뒤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무릎 바깥쪽 인대가 찢어진 것으로 드러나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마틴 울 토트넘 감독은 17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영표는 올 시즌 잔여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이며 "두 달 보름에서 석 달 정도 팀에 합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체에 따르면 이영표는 아직 귀국 계획은 없으며, 일단 영국 현지에서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다.

역시 무릎을 다쳐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오른쪽)은 조기 복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진단 결과가 나오는 데 2주 가량 걸릴 것 같다. 부상 부위를 정밀 검

사하고 있고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팀 내 사정이 박지성의 조기 합류 기대를 높이고 있다.

박지성의 소속사인 JS리미티드에 따르면 박지성은 현재 통증도 없고, 훈련에도 지장이 없다.

답답하게 복귀 지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맨유는 최근 박지성을 비롯해 중앙수비수 리오 퍼디난드와 네만자 비디치, 오른쪽 풀백 게리 네빌, 골키퍼 에드윈 판데르사르 등 주전들이 줄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퍼거슨 감독은 18일 오전 프리미어리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전(2-0 승)에서도 미드필드 대원 플레처를 오른쪽 풀백으로 내리고, 측면에 있던 가브리엘 에인세를 중앙수비수로 돌리는 등 고육책을 썼다.

FA컵 결승,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며 8년 만에 트레블(정규리그, FA컵, 챔피언스리그 3관왕) 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맨유가 남은 시즌 치를 수 있는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5경기를 포함해 최대 9경기다.

맨유로서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 온 박지성의 복귀가 절실한 처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어디다 쓸까?

베어백, 박주영 쓰임새 놓고 고민 한동원 눈부신 활약으로 주전 췌차 대표팀 복귀해도 주전 기용 불투명

상승세를 타고 있는 '올림픽 베어백호'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바로 박주영(FC서울)의 쓰임새다.

박주영은 2월28일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2차 예선 F조 1차전 예멘전에서 양동현(울산)의 결승골 도움을 기록한 뒤 '배치기 최장'으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3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으로선 최악의 전력 손실을 입은 듯 했다. 하지만 베어백호는 1차전 승리에 이어 2, 3차전에서 박주영의 공백을 메운 한동원(성남)의 두 경기 연속 두 골 행진을 앞세워 최종예선 진출에 바짝 다가갔다.

박주영의 공백을 한동원이 제대로 메웠고, 오히려 올림픽 대표팀을 한층 더 확고한 '베스트 11'의 위용을 갖추게 됐다.

이 때문에 펠 베어백 감독 역시 양동현(울산)을 원톱으로 좌우에 이근호(대구)와 이승현(부산)을 내세우고 중앙에 한동원-박지훈(수원)-오장은(울산)을 포진시킨 4-3-3 전술의 안정성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박주영이 경기에 복귀할 수 있는 2차 예선 5차전부터 자신의 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4-3-3 전술을 기본으로 하는 올림픽대표팀의 전술에서 중앙 공격수보다는 측면 공격에 장점을 발휘하는 박주영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근호와 이승현이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력을 깨면서까지 박주영을 투입해 관을 흔들 필요가 있는지는 것이다.

2차 예선 3경기를 치르면서 박주영의 부재에 대한 큰 아쉬움이 없었던 데다 소속팀 활약을 큰 점수를 주는 베어백의 스타일에 비해 남은 경기에서 그를 다시 합류시켜 현재의 조직력에 변화를 주려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올림픽호 내부의 전망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선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토크리 추격자 첼시의 '패권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지성(26)의 소속 팀 맨유는 18일(이하 한국시간) 홈에서 셰필드를 완파해 2위 첼시와 거리를 벌였다.

승점 81로 첼시(승점75)와 격차는 6, 그러나 첼시가 19일 웨스트햄을 이기면 간격은 다시 3으로 좁어진다.

남은 경기 수는 맨유가 5, 첼시가 6, 두 팀 맞대결은 5월10일 첼시의 홈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한 번 남아있다.

설사 맨유가 첼시에 지더라도 남은 경기



맨유-첼시 리그 '패권전쟁'

맨유, 남은 경기·승점 등 고려 유리

를 모두 이긴다면 우승컵을 들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골득실에서 맨유(+54)가 첼시(+37)를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맨유는 이번 주말 미들즈브러부터 에버턴, 맨체스터시티, 첼시, 웨스트햄과 차례로

만난다. 첼시는 웨스트햄, 뉴캐슬, 볼턴, 아스널, 맨유, 에버턴전이 남아있다.

맨유가 상대한 다섯 팀의 순위 평균은 10.4위로 첼시, 에버턴을 빼면 중하위권이다.

하나 걸리는 대목은 마지막 38차전 상대 웨스트햄이 작년 12월 맨유에 0-1 패배를 안

한국축구 추락

FIFA 랭킹

48위



51위

한국 축구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두 달 연속 하락해 다시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FIFA가 18일 홈페이지(www.fifa.com)를 통해 발표한 4월

남자축구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보다 24점이 떨어진 585점을 얻어 48위에서 51위로 세 계단 내려앉았다.

한국이 50위권 밖으로 밀려난 건 1월(51위) 이후 석 달 만이다.

아시아에서는 상위권 국가들의 랭킹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이란(673점)이 8계단 떨어진 42위로 가장 높았고 호주(43위), 일본(46위)이 뒤를 이었다.

북한이 두 계단 떨어진 142위였고, 한국이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 예선 F조 4차전에서 상대할 우즈베키스탄은 60위로 7계단 하락했다.

2006 독일월드컵 우승국 이탈리아는 1천604점을 얻어 아르헨티나(1천594점)를 밀어내고 2월 이후 두 달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이 3~5위를 지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겼다는 점. 첼시의 남은 상대팀 순위 평균은 7.5위. 맨유보다 강팀들이 많다.

특히 6위 볼턴, 3위 아스널과 대결이 고비다. 첼시는 남은 팀들과 이번 시즌 4승2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남은 일정과 현재 승점, 골득실 차를 감안하면 맨유가 유리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단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의 걱정거리는 박지성을 비롯해 주축 선수들이 '집단 부상'에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형욱 MBC 축구 해설위원은 "맨유의 우승 확률을 60~70%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